

#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

Dept. of Architecture, Jeonju Univ.

완도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이며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곳. 전북양식과 멀치어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외지인 유입이 많은 곳. 낙서재, 세연정원림, 동천석실 등 유적이 수려한 자연과 함께 분포되어 있어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여러 프로그램과 시설이 계획되고 있는 곳... 다양한 설명이 가능한 매력적인 섬이지만 보길도를 찾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리적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사람의 삶과 역사, 산업과 자연을 심도깊게 들여다 보고 함께 고민해서 5년간의 건축학 교육 여정을 미루리하고자 힘에 있다.

## 임용민\_ Studio

### 강유라\_Literature Village

도시의 문인들이 자연 속에서 시와 글을 쓰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와 서실을 제공하고, 주민들과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을 조성. 문학관을 통해 방문객에게 새로운 역사적 경험의 장소로 제안한다.

### 박길호\_The Healing Bath

대상지는 전복을 양식하던 치폐장으로 이용되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다. 기존의 자연적 요소를 감상하며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목욕을 선택했고, 비단물을 이용한 해수탕을 계획하였다.

### 이소연\_황칠나무 생태원

지속적인 모종확보와 연구, 황칠나무 생태에 대한 체험, 자연환경속의 스파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른 미래 가치적 가치가 있는 황칠나무를 이용한 숲 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 장은정\_ 6시간의 기억

하루 2번 간조 때 길이 열리는 목섬과 기존의 작업장으로만 사용되던 선착장에 새롭게 관광지를 제안한다. 물에 개방되어진 대지의 특징을 이용해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 최혜진\_보길령동농장

보길도 경제산업은 어업, 그 중 양식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로인한 낙후된 농업경제를 보이고 있다. 기후에 민감한 양식업의 보안과 함께 농업경제 변화에 기대하는 새로운 농업시스템을 제안한다.

## 김이석\_ Studio

### 김영범\_ 향해

스킨스쿠버들을 위한 장비 및 그들끼리 커뮤니티할수있는 공간 그들만을 위한 클럽 산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다로 향하는 길 여행을 기대하고 꿈꿀수 있는 곳이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할수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손재강\_지붕길

지붕길은 도서지역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주변 환경에 맞춰 건물 지붕을 공원처럼 즐길 수 있는 의료시설이다.

### 이훤\_ 자유를 만끽하다

비디와 맞닿아 있는 새로운 해수욕 편의시설을 통해 보길도만의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고, 해양 안전 체험을 통해 해양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 시켰으면 한다.

### 황규하\_Resort Hotel

여행으로 인한 마음의 휴식이 있었다면 숙소로 인한 몸의 휴식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보길도에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한다.

## 김동원\_ Studio

### 기혜진\_Beyond 3 Hours

촌의 삶을 면밀히 살피다가 밤과 후 부모의 귀가까지 비는 3시간에 주목하여 안전하게 놀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놀이학교를 생각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폐교와 자연을 연결하면서 풀어내었다.

### 김현진\_어울림

어촌공동체 변화와 구성원 유형의 분화로 주거, 커뮤니티, 상업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숲, 어항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개인의 미당 공간의 확장은 이웃간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고자 했다.

### 오병창\_Modern Refresh

집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이 충분한 휴식이라고 말한다. 랜드스케이프 호텔은 자연속에 숨여서 고요함을 즐기는 시설이다.

### 정윤성\_Sea;Nergy

귀어인과 어업인들이 기술을 전수하고 교류하며 어업의 지속발전을 이를 수 있도록 교육시설-직업장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 강성필\_ 고산원림

세연정에 인접한 원림 조성방식을 따라 경계를 흐린 미술관은 세연정과 주민주거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를 공감하는 매개체가 되는 프로젝트이다.

### 안지훈\_ 慰; 위로하다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남이 있고 누구에게나 오는 인생의 끝, 죽음도 있기 마련이다. 장례의 방식은 간결해지면서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기리는 마음이다.

### 이준의\_ 터를 내주다

식약한 형태로 놓인 치폐장 위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리조트 시설이 융합되면서 치폐장이 단순 콘크리트 벽이 아닌 구조벽으로 계획되어 보길도 관광객들에게는 휴식의 공간, 어민들에게는 일터가 되어 상호이익을 제공한다.

### 조주희\_ 맛보고 즐기고

현재 보길도는 특산물인 전복을 체험하고 관광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site에 새롭게 전복 관련 전시실과 체험시설을 주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를 제안한다.

### 김예지\_ 보길도 종리시장

해변가에 가까이 위치한 대지를 이용해 보길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장을 만들어주고, 행위 패턴에 따라 요일별, 계절별로 사용 되는 시간적 계획을 해주겠다.

### 이건희\_H Sports Center

보길도에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과 뛰어 놀고 싶은 어린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운동 공간을 만들다.

### 우경식\_ 17 Housing

예속도를 거주성의 확보를 위한 주민 주거와 섬의 경관자산과 기존 주거지의 재생의 두 가지 주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섬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정태환\_ Puzzle Camping

원만한 경사지에 글램핑 리조트를 계획했다. 리조트와 캠핑을 같이 섞어 하나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보았다.

### 송명선\_ 산후조리원

산욕부와 신생아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의 프로젝트이다.

### 이효재\_ 보길 윤선도 박물관

지연과 공존하는 윤선도의 이상향을 공간화한 박물관을 통해 보길도에 스며있는 역사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낙서재, 세연정원림, 동천석실 등 유적이 수려한 자연과 함께 분포되어 있어 여러 프로그램과 시설을 계획하고자 한다.

### 하신성\_ Bogil Chapel

기도원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돋독하게 하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조용한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 이명희\_Close Encounters of Fisherman

아부 학교 계획인은 외지인들이 직업 훈련을 통해 상호 교류와 정착을 돋는 사회 교육시설을 제안한다.

### 정준문\_Family Theater

장사도의 과거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었으나 현재에는 을씨년스러운 폐가만이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을로서의 역사성이나 맥락은 희미하여 반쯤 무인도가 되었고, 그 곳에 섬들을 잇는 문화의 징이 되고자 한다.

### 권기범\_A Turning Point

인간은 자연이 주는 생명을 다하면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편안한 임종을 맞이 하는 곳, 호스피스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프로그램으로 선정, 자연을 담고, 병든 노후를 편히 보낼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 하였다.

### 신수빈\_Patchwork Village

외지인과 원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소셜 다이닝을 중심에 두고 현지 단독주택 공간구조를 반영한 공동주거에 커뮤니티시설을 입체적으로 조작하였다.

### 이창현\_Being Flat

보길대교를 넘어가면서 처음 발견하게 되는 보길도의 청별향에 400미터의 도시적 스케일을 담아 풀어낸 상업복합시설을 제안하였다.

### 장현수\_Housing for Fishermen

보길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생활패턴, 주거양식 등 보길도의 삶에 대해 조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Housing for Fishermen은 보길도의 생활패턴, 삶을 담아낸 프로젝트다.

### 김은하\_From port to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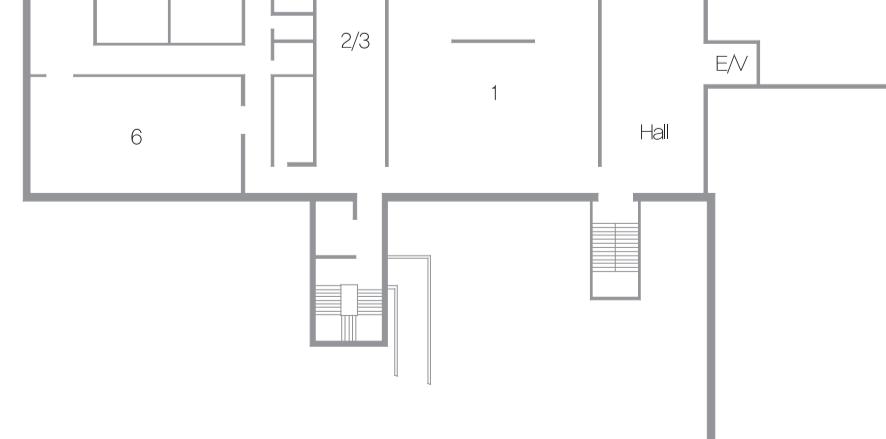
기능이 충소된 항구에 어업 지원시설과 관광 지원시설을 복합하고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항구의 재생을 시도하였다.

### 양정환\_One for All

귀어인과 원주민의 건강한 교류를 위해 보건지소, 노인정, 어린이집과 공동주거를 한 마당에 계획하여 프로그램 통합과 조화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 임동영\_A life in blue ocean

복잡한 도시를 떠나 귀어에 정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청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시와는 다른 어촌에서의 원주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분식점과 찾아낸 공동작업장과 공동체 경제구조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제안한다.



전시기간 | 2018. 6. 28(목) – 2018. 7. 12(목)

개막식 | 2018. 6. 28(목) 13시

특강 | 로디자인 김동진 소장

장소 | 전주 팔복예술공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례들1길 46)

운영시간 | 전시 10:00 – 18:00(화-일)

\*18시기준 30분전 입장 마감

\*월요일 정기휴무

전주 대 | 063-220-2653

전시장 | 063-283-9221

## 전시장 안내

- STUDIO OF GRADUATION
- STUDIO 4\_SOCIAL HOUSING
- STUDIO 3\_MUSEUM
- STUDIO 2\_7.5X7.5 주거
- STUDIO 1\_형태배내기
- 특강\_로 디자인 김동진 소장

24th Architecture exhibition of Jeonju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e  
**GRADUATION**

# X GRADUATION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 2018. 6. 28 \_ 7. 12